

# 일본 ECA 월간 동향 (21.1월)

( '21. 2. )

동경사무소

## 1 | 조직 · 제도 및 정책 변경사항

### 1] 국제협력은행(JBIC)

- ☐ '포스트 코로나 성장 퍼실리티' 창설('21.1.29자)

### 2] 일본무역보험(NEXI)

- ☐ 일부 제도 개정
  -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자금대출보험(후순위대출특약)의 특약서 간소화, 프리미엄의 커버범위 유연화, 해외투자보험 Q&A 개정 등

## 2 | 주요 신규지원 사례

### 1] 국제협력은행(JBIC)

- ☐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등 해외사업 지원
    - 베트남 각종 정밀기계부품 제조·판매 사업, 미국 해산물 가공품 제조·판매 사업, 인도 콘크리트제품 제조·판매 사업, 멕시코 자동차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판매사업 지원 등 (총 6건)
- \* 베트남, 미국, 인도, 멕시코 등

## □ 팔라우 국영 해저케이블공사 앞 통신인프라 설비 수출 지원

- 지원개요 : 팔라우 국영 해저케이블공사(BSCC)가 일본전기(NEC)로부터 해저 케이블 관련 설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바이어스 크레딧 대출

### ※ 특별업무 안건

- 협조융자총액 : USD8백만(JBIC분 USD4백만)
- 민간 협조융자기관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 민간 지원분은 NEXI 보험 부보
- 또한, 본건은 미국정부 및 미국국제개발청(USAID)\*, 호주정부 및 인프라융자퍼실리티(AIFFP)\*\*가 협조융자한 일·미·호주의 제3국의 연계 안건임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 1961년 설치된 미국의 해외원조를 실시하는 정부조직

\*\* The Australian 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y for the Pacific (AIFFP) : 호주 외무무역부 산하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을 목적으로 한 퍼실리티

- 사업개요 : NEC가 BSCC에 납품하는 해저통신설비는 미국-동남아시아 간 해저통신 케이블에 사용될 예정으로 팔라우 국내 통신환경 정비를 목표
- 지원배경 : JBIC은 2018. 11월 美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現 미국 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호주수출금융보험공사(Efic, 現 수출신용기관(Export Finance Australia; EFA) 간에, 삼국 기업의 인도 태평양 지역 등 제3국 협조 프로젝트 개발을 목적으로 ‘인도 태평양 인프라 투자에 관한 3기관 간 파트너십’ 각서 체결. 2020. 10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일-미-호주 3개국 외무 장관이 본건이 제1호 안건이 될 것으로 발표

## □ 멕시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에 대한 융자

- 지원개요 : 도요타합성(Toyota-gosei)의 멕시코법인 TGASMX의 웨더스트립\* 제조·판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

\* 자동차 문을 닫을 때 비·바람·먼지 등의 차내 침투를 방지하는 부품

- 지원금액 : JBIC분 USD13.4백만
- 협조융자기관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성장투자퍼실리티 지원 안건

## 2 일본무역보험(NEXI)

### □ 팔라우 국영 해저케이블공사 앞 통신인프라 설비 수출 융자 보험 인수

- 'LEAD 이니셔티브' 지원 안건
- 피보험자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보험가액 : USD4백만
- 보험책임기간 : 약 8년
- 전보범위·부보율 : 비상위험 100%, 신용위험 95%

## 3 지원실적 [20.2분기(7~9월) 기준]

- (승인) 총 승인건수 51건, 승인금액은 8,026억엔으로 전년동기 (19. 2분기 승인건수 38건, 승인금액 3,406억엔) 대비 지원규모가 확대

(단위 : 백만엔)

구 분	7월		8월		9월		2분기 계		20회계연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출.용자	25	636,995	13	114,997	13	50,685	51	802,678	878,599
수출금융	-	-	-	-	-	-	-	-	-
수입금융	-	-	-	-	-	-	-	-	-
투자금융	25	636,995	13	114,997	13	50,685	51	802,678	875,650
사업개발등금융	-	-	-	-	-	-	-	-	-
출 자	-	-	-	-	-	-	-	-	2,948
보 증	-	-	2	316	-	-	2	316	174,719
합 계	25	636,995	15	115,313	13	50,685	53	802,994	1,053,318

\* 2020 회계연도(2020. 4월 ~ 2021. 3월)

□ (집행·회수) 2분기 집행액은 5,303억엔, 회수액은 3,311억엔이며, 분기말 여신 잔액은 15조 3,525억엔(출자·용자 13조 937억엔, 보증 2조 2,588억엔)

(단위 : 백만엔)

구 분		7월	8월	9월	2분기 계	20 회계연도 계
집행액	합 계	218,177	190,575	121,605	530,358	859,742
	출자·용자	216,446	189,235	108,287	513,969	657,978
	보 증	1,731	1,339	13,318	16,389	201,763
회수액	합 계	118,047	76,965	136,093	331,106	868,489
	출자·용자	110,422	73,990	117,656	302,069	813,927
	보 증	7,625	2,974	18,437	29,037	54,561
잔 액 (월 말)	합 계	15,213,205	15,464,976	15,352,562		
	출자·용자	12,949,013	13,198,988	13,093,741		
	보 증	2,264,192	2,265,987	2,258,820		

## 4 | 기타 중요 이슈

### 1 | 국제협력은행(JBIC)

#### □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DFC)와 양해각서 체결

- 개요 : 인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서반구, 동유럽 등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협력분야인 인프라, 에너지 및 자원에 더해 전력, 수소,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서플라이 체인 강화 등의 분야에서도 일-미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도모
- USDFC 개요 :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가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일부 기능을 집약하여 '19. 12월에 미 정부금융기관으로서 출범. 프로젝트 출용자·보증, 정치적 리스크 보험 등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동원을 통한 개도국 경제개발과 미 외교정책 추진을 지원
- 배경
  - JBIC 및 OPIC는 '17. 11월 일-미 기업이 참여한 인프라, 에너지 및 자원 등의 프로젝트 추진을 목적으로 양해각서 체결. 금번 각서는 2017년 이후 OPIC, USDFC와 구축해 온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내 협력 프로젝트 형성을 통해 일-미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일-미 관계 강화를 도모

#### □ 글로벌 달러 채권 발행조건 결정(제46차 JBIC 정부보증외채)

- 발행액 : US\$15억 / 발행시장 : 글로벌채권시장
- 기간 : 10년 (2031.1.21일 일괄상환)

- 표면금리 : 1.250%(S.A.)
- 발행가격 : 98.993%(Re-offer yield: 1.358% (S.A.))
- 보증인 : 일본 정부 / 상장 :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 발행일 : 2021년 1월 21일
- 자금용도 : 일반업무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
- 인수 간사단 (공동주간사) : 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 Barclays Bank PLC, 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 Goldman Sachs International
- 신용등급 : 무디스 재팬 : A1, S&P 글로벌레이팅재팬 : A+

☐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사업 전개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 주요 내용은 '참고2' 참조

☐ **2 일본무역보험(NEXI)**

☐ 특이사항 없음

## 참고 1

## '포스트 코로나 성장 퍼실리티' 개요('21.1.29자)

□ 개설일자 : 2021년 1월 29일

□ 개설 배경

- 일본 정부의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2020. 12. 8일자 각의결정)에 따라, 포스트코로나를 향한 경제구조의 전환 및 선순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기업에 의한 ①탈탄소사회를 향한 고품질 인프라의 해외 전개 및 해외사업, ②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강화를 도모
- 한편, 2021년 6월 30일까지의 시한 조치로서 실시 중인 일본 기업의 선진국 사업에 대한 금융은 2021. 1. 29일자 재무성 고시 제20호에 의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 시행 방안

- 신규 창설하는 '포스트 코로나 성장 퍼실리티' 내, ①'탈탄소 추진 창(Window)' 및 ②서플라이 체인 강인화 창을 설치
- 2020. 1. 31일자 설치된 '성장투자퍼실리티' 중 고품질인프라환경 성장창 및 해외전개지원창은 2021년 1월 28일자로 조기 폐지하고, 신형코로나위기대응긴급창은 존속

### ① 포스트 코로나 성장 퍼실리티(탈탄소 추진 창) 실시요령

○ 대상 안전(일반업무계정)\* :

- 1) 온실가스 등의 배출삭감 또는 기타 지구환경보전 목적에 기여하는 안전(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그린 모빌리티(modal shift(수송수단의 효율화), 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방지, 물공급·수질오염방지, 폐기물처리 등)

2) 자원금융(투자금융·수입금융)의 대상 안건('자원 안건')

- 단, 지구환경보전 목적에 이바지하는 비화석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건에 한정

\* '성장투자퍼실리티'의 신형코로나위기대응긴급채 해당 안건 제외

○ 지원통화 : 미 달러·유로·엔·기타 통화(개별 결정)

○ 대출비율 :

- 1) 온실가스 등의 배출 삭감 또는 기타 지구환경보전 목적에 기여하는 안건은 협조융자 총액의 60% 이하(단, 차입인이 중소·중견 기업 또는 그 현지법인인 경우 등은 70% 이하)
- 2) 자원 안건은 협조융자총액의 70% 이하(단, 국내대출에 대해서는 60% 이하)

○ 금융계약 조인기한 : 2022년 6월말

○ 기타 조건 : 개별적으로 결정

② 포스트 코로나 성장 퍼실리티(서플라이체인 강인화 창) 실시 요령

○ 대상안건(일반업무계정)\* : 일본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강인화에 기여하는 이하의 안건

- 1) 일본법인 등이 출자 등에 의해 해외에서 사업을 개시·확대 또는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외국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법인과 관련한 사업상 제휴를 수반하는 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안건('해외 M&A 안건')

- 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사업을 하는 외국 법인

- 일정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을 위해 통상 이용되는 기술 이상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의 법인



- 일정 지역에서 널리 판매·제공되는 상품·용역에 관해 축적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서 출자법인 등이 미보유한 것을 보유한 외국의 법인

2) 자원 금융(투자금융, 수입금융)의 대상 안전(‘자원 안전’)

- 3) 1), 2)에 해당하는 건을 제외하고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투자금융·사업개발 등 금융 안전  
(사업개발등금융 안전은 일본 기업의 공급망을 구성하는 조달처와 판매망 등의 해외 사업자를 지원하는 안전으로 제한. ‘기타 국제 경쟁력 안전’)

\* ‘성장투자퍼실리티’의 신형 코로나 위기대응 긴급창 또는 ‘포스트 코로나 성장 퍼실리티’의 ‘탈탄소 추진 창’ 해당 안전 제외

○ 지원통화 : 미 달러·유로·엔·기타 통화(개별 결정)

○ 대출비율 :

- 1) 해외 M&A 안전 및 기타 국제경쟁력 안전은 협조융자 총액의 60% 이하(단, 차입인이 중소·중견기업 또는 그 현지법인인 경우 등은 70% 이하)
- 2) 자원 안전은 협조 융자 총액의 70% 이하(단, 국내 대출에 대해서는 60% 이하)

○ 금융계약 조인기한 : 2022년 6월말

○ 기타 조건 : 개별적으로 결정

## 참고 2

### JBIC의 2020년도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사업 전개에 관한 조사결과 주요 내용

□ 설문대상 : 일본 제조업체 대상 기업수 954社, 유효 회답수 530社,  
유효 회답율 55.6%)

□ 설문내용 : 해외사업에 실적이 있는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사업  
전개 현황, 과제, 향후 유망지역 및 유망사업, 코로나의 영향,  
SDGs 대응 현황 및 전망 등

#### □ 조사결과 주요 내용

(1) 해외사업 축소, '23년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예상

- 각국의 록다운 등에 따라 국내외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끊긴  
결과 해외 생산 비율이 33%대며, 10년전 수준으로 급감. '23년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 전개의 강화와 확대  
의욕도 59%까지 떨어져 '89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저 수준

(2) 유망국 랭킹 1위 중국 복귀, 새로 주목 받은 나라도

- 향후 3년 정도 유망 사업대상국가는 중국이 인도를 제치고  
1위로 복귀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조기 대응을 통해 경제  
활동을 재개시킨 결과. 한편, ASEAN 지역내 베트남, 방글라  
데시 등이 주목

(3) 서플라이 체인의 강화가 진척, 코로나 이후를 위한 지방소비형  
생산 네트워크 마련

- 코로나19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영향은 4~5월경이 정점, 이후 해소 중. 일본, 미국보다 중국, ASEAN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동 지역 생산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재확인. 한편, 코로나 이후 혹은 트럼프 이후, 최종 소비자 중심의 지방소비형 생산 네트워크 재편성이 대안으로 인식

#### (4) 절반 기업이 SDGs에 대처

- 경영방침이나 CSR 등 제반 형태로 SDGs에 대응하는 기업이 절반 정도. 대응 동기는 「소비자나 판매처·업계 단체의 관심 환기」, 「자발적인 대처」, 「투자자와의 관계 유지」 등이며, 업종을 불문하고 SDGs에 대응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

#### (5)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대응 모색

-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등의 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으로서 IT 투자의 확대, 지방소비형 생산 네트워크로 전환·최적화, SDGs 프레임워크 도입 등을 통한 기업가치의 재발견 등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하는 움직임